

BAZAAR

Harper's

Spring's New Bags

미술계의 돌체 앤 가바나
DJ들의 애청곡

Makeup Tips at Every Age

패션 비즈니스의 진실 혹은 거짓

SPF Service

도나텔라 베르사체 모녀의 삶과 스타일

Donatella & Allegra

뷰티 에디터, 앤디 워홀을 만나다!

Factory Beauty

별책부록 (48page)
Special
Jewelry Book



대한민국 최초의 자유여성, 윤복희
우아한 마흔, 송강호
오정해의 행복론
벤 위쇼와 기쿠치 린코

The New Shapes for Spring

Artist Inter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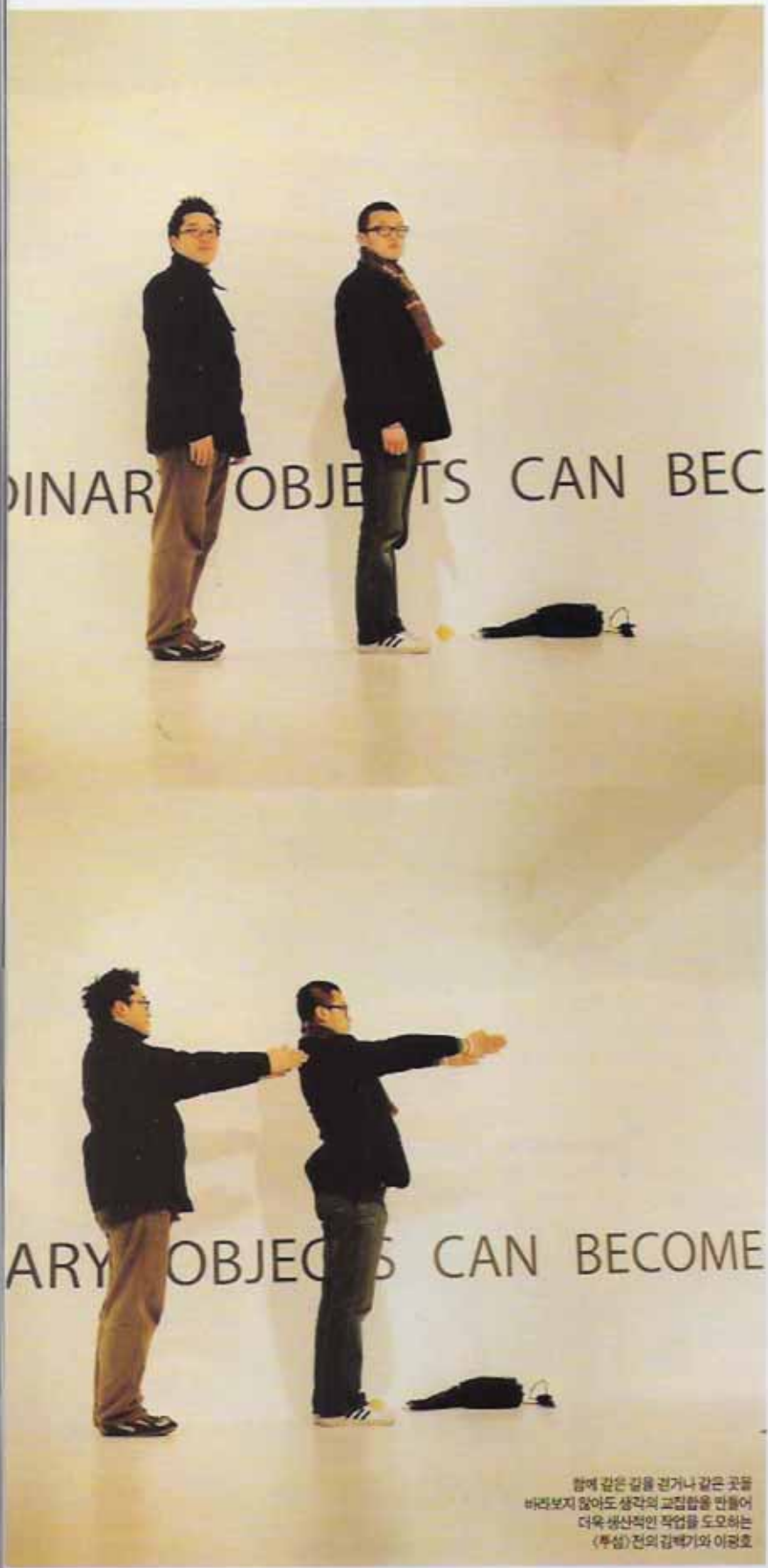
갈베르 & 조지, 루벤 톨레도와 이자벨 톨레도, 로렌스 와이너, 알렉산더 폰 페게작, 이상열, 나기노타

APRIL 5,000원



9 771228 111007

ISSN 1228-1115



함께 같은 길을 걷거나 같은 곳을 바라보지 않아도 생각의 교집합을 만들어 더욱 생산적인 작업을 도모하는 <투스>전의 김백기와 이광호

Twosome 김백기 + 이광호

투스(Twosome). 지난 3월, 홍대 앞 BMH에서는 '서로 다른 색을 가진 두 디자이너의 가구와 조명 이야기'라는 테마로 조용한 전시가 열렸다. 김백기, 이광호의 (2인조 가구+조명 (Twosome Furnitures & Lightings)) 전. 공업디자인을 전공한 김백기는 4년간 삼성전자에서 영상 디스플레이 및 제품 디자인을 했고, 지금은 그 멀찍한 회사를 떠나서 창업하고 영국으로 날아가 백수가 될 공리 중이다. 김백기보다 여섯 살이 어린 이광호는 금속조형디자인을 전공했고 디자인 그룹 'studi-oh'(www.studi-oh.com)의 소속으로 활동 중이며, '매드(Mad)'라는 록 밴드의 보컬이다. 그리고 그는 스페인에서 바를 하는 게 꿈이다. 그들은 3개월 전, 오리 고기 전문점에서 처음 만나 서로 호감을 느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함께 전시를 기획했고 각자의 결과물들은 한 공간에 모아졌다. 언뜻 보기엔 이 전시는 한 사람의 목소리로 들릴지 모르나, 이들 작업의 테마는 상당히 상대적이다. 김백기가 주목한 것이 형태가 품은 기능과 감상적인, 대량 생산이 준비된 과정이라면, 이광호가 풀어 나가는 세가지는 '쉬운 형태', '복잡하지 않은 공장', 그리고 '핸드메이드'다. 따지고 보면 한없이 무질서하고 불규칙하면서 나름의 질서와 규칙성을 잊지 않은 이들의 호응은 전시장 중앙의 공동작업 스톨로 교집합 되는데, 그것의 제목은 '짚과 설움(Zip & Snowfall)'. 추수가 끝나고 눈에 짚을 쌓아놓은 풍경과 참박눈이 내린 장독대의 풍경은 매우 다르면서 매우 닮은 두 디자이너의 필터를 거쳐 하나의 자아로 완성되었다. "서로를 배울 수 있고, 생각의 상호보완이 되는 것은 물론, 작업을 같이 하게 되니 속도가 빨라진다." 결국 두 개의 브레인에서 피어나는 조그만 변수가 나중에는 엄청난 결과로 뒤바뀔 수 있다는 것. 주목하라. 서울에 있는 이들의 날개짓이 다음달 영국 런던에서 폭풍을 발생시킬 수도 있으니까. 근데 소리침도 아니고 투심? "섹시하기도 하고" 오해 미사길, 이들은 자극히 스트레이트하다.



김백기의 (Positive Negative=Negative Positive)



이광호의 (짚(Zip))



김백기의 <설움 (Snowfall)>